

The Key VII.

어둠의 영향력은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묶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6:18-19]

18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19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1. 묶고 푸는 일 - 기도

(1) 기도

예수님이 베드로의 고백위에 교회를 선포하셨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승리하는 교회인 것이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천국의 열쇠'를 주셨다. 열쇠는 무엇인가? '권세'를 상징한다. 열쇠가 있어야 잠글 수 있고, 열 수 있다. 이것은 이 땅에서 하늘을 열 수 있는 열쇠이다. 하늘을 열 수 있는 천국의 열쇠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기도이다. 예수님은 성전을 향하여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마가복음 11:17)이라 말씀하셨다.

[야고보서 4:2-3]

2 ~너희가 얻지 못하는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3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이루신다. 야고보서에 보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첫째, '구하지 않는다(기도하지 않는다)' 둘째, '정욕으로 구하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 라는 이유뿐이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기만 하면 응답을 받을 수 있다. 기도는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허락하신 특권이다. 땅에서 드리는 기도의 응답이 어디로부터 이루어지는가? 하늘이다. 그래서 기도하는 곳에는 언제나 보이지 않지만 하늘문이 열려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천국의 열쇠인 기도의 기능은 무엇인가? '매고 푸는 일'이다. 그렇다면 무엇을 매고 무엇을 풀어야 하는가? 영적인 일이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영역은 바로 '마음'이다. 기도는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니다.

(2) 기도는 행위가 아니다. 우리의 마음이 올려지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 이전에, 마음의 중심을 받으신다. 마음이란 무엇인가? '진실됨'을 말한다. 왜 마음이 중요한가?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인격적인 교제 관계에 있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진정한 관계란 무엇인가? 마음이 통하는 것이다. 마음이 하나되는 것이다. 마음(영혼)이 없는 피상적 관계, 비즈니스적 관계가 아닌 것이다. 그러므로 기도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올려지는 것이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 수 있는 것이 천국의 열쇠인 기도이다. 이것의 구체적인 장소는 성도의 '마음'이다. 우리 마음에서 묶고 푸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을 묶고 풀어야 하는가?

- 어두움으로부터 오는 모든 영역의 영향력을 묶어야 한다.
- 천국으로부터 오는 영향력을 풀어야 한다.

예수님의 겹세마네 기도를 예로 들어보자. 기도는 마음을 올려드리는 것이라고 했다. 예수님은 겹세마네 기도의 상황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표현하신다.

[마가복음 14:34]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보라.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묶고 무엇을 풀어내셨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지만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 자신이 죽어야 하는 엄청난 고통 앞에서 예수님의 마음에 비추어졌던 어두움의 소리들이 있었을 것이다. 예수님의 광야시험을 생각해 보라. 하나님인 예수님에게도 사탄의 소리가 들려 왔다는 사실은 놀랍다.

예수님은 심히 고민하여 죽을 것 같은, 이러한 원인을 제공했던 어두움의 영향력을 기도를 통해서 매었을 것이다. 그리고 하늘에서 비추어지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더 풀어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하여 반응하는 마음을 매고 푸는 일이 기도이다

2. 지속적인 기도

(1) 마음을 경작하라.

우리의 마음은 모든 상황에 반응한다.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은, 반응하는 마음의 상태를 잘 아는 것이다. 그리고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마음이 성령충만 하도록 보호하며 경작하는 일이 기도이다. 그래서 기도는 '한 번'에 이루어지는 이벤트가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 에덴처럼 지속적으로 마음을 경작하여 지키는 일이 중요하다.

(2) 마음에 비추이는 어두움을 지속적으로 묶어라.

육의 소욕을 묶어야 한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육의 소욕을 묶어야 한다. 열심히 기도해도 하늘로부터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육신의 생각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우리 마음에 비추어진, 육신으로부터 오는 영향력들을 단호하게 매어야 한다.

[로마서 8:6-7]

6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7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갈라디아서 5:17]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19-21]

19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20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맺음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21 질투와 술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놀음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묶어야 할 육신의 영역은 모호하거나 추상적이지 않다. 육신의 행실은 환히 드러나는 명확한 것들임을 알아야 한다. 음행의 생각이 있는가? 기도로 묶어야 한다. 음행의 뿌리는 어디인가? 음욕을 품은 마음이다. 마음에서 나타나는 일이 바로 '영적인 영역'이다. 그러므로 영적인 영역을 다스리는 일 또한 영적인 것이다.

기도를 통해서 육신의 소욕을 묶는다는 것은 '참는다'는 것이 아니다. 묶는다는 것은 어떤 영향력도 없도록 완전히 차단한다는 것이다. 인간의 마음은 노력과 자기 수행으로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제어하느냐 또는 제어 당하느냐의 문제이다. 권세의 문제인 것이다. 그래서 육신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권세로 육신을 다스려야 한다. 육은 영의 통제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왜 그런가?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의 본성 자체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다.

(3) 기도를 통해 천국의 능력을 풀어라.

기도는 풀어내는 능력이 있다. 무엇을 풀어야겠는가? 육신의 소욕과 반대되는 천국의 속성을 풀어야 한다. 천국의 속성은 무엇인가?

[갈라디아서 5:22-23]

22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23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안에 기도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풀어내야 할 영역은, 하늘의 성품인 '성령의 열매'이다. 열매란 무엇인가? 완성품이다. 결과물이다. 열매는 나무에 열린다. 열매는 혼자 저절로 맺혀지지 않는다.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야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이다. 성장하고 성숙한 나무에만 좋은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마음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있다는 것은 하늘의 응답이 풀어지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다. 성령의 열매가 풀어지는 곳이 바로 '천국'이다. 천국은 능력이다. 천국의 능력앞에 불가능한 것이 없다. 마음에 맺혀지는 성령의 열매가 땅의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천국의 열쇠임을 알아야 한다.

우리 마음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성령의 열매가 풀어지고 있다면, 이미 이 땅에서 천국의 임재안에 살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천국의 능력은, 예수님의 마음이 지속적으로 천국의 속성을 풀어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마음 받은 무엇을 심어도 열매와 응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라.

이제 천국의 열쇠인 기도를 통해 천국의 속성을 풀어내자. 어떤 어두움도 틈타지 못하는 천국의 능력을 풀어내자. 그 곳에 회복과, 기적과, 소망과, 비전과, 부유함과, 풍요함이 있을 것이다.

(4) 지속적으로 적셔야 한다.

'경작은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다. 지속적으로 해야한다.' 마음 밭을 지속적으로 경작하여 천국의 능력을 경험하라.

[Don't forget you are under constant surveillance from the evil one. He tries to attack where you are vulnerable. So be on the alert and equip yourself by calling upon the name of Jesus. In the name of Jesus there is victory and great power. His name carries weight in heaven and hell. Oppose the evil one again and again with this name, and you will be victorious.]

[악한 자가 끊임없이 당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라. 원수는 쉬지않고 당신의 약점이 어디에 있는지 공격할 곳을 찾고 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무장하고 깨어 있으라. 예수님의 이름에는 승리와 권능이 있으며 천국과 지옥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 이름으로 늘 새롭게 악한 자를 대적하면 당신은 승리하게 된다. _ M. Basilea Schlink]